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4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병원이 연말을 맞아 입원 환아들에게 손뜨개 모자 200개를 최근 전달했다. 선물은 손뜨개 유튜브 채널 '니팅헨즈' 관계자 및 구독자들의 제작과 후원으로 마련됐다. 사진은 11월 19일 146병동에 입원 중인 박지우 환아(오른쪽 첫 번째)가 선물 받은 모자를 쓰고 소아청소년중앙혈액과 고경남 교수, 어린이병원간호팀 신우아 유닛 매니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_____ 소속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지나호 정답



제736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꿈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문화·생활정보 - 올 가을, 좋은 책 함께 읽어요'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감염관리팀 이진주 주임이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천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4년 12월 15일(일)

발표 제740호(2025년 1월 1일 발간)

독자를 위한 선물

당첨자 명단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최민경(수술간호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김순희(소화기내시경팀)
박지후(영상의학팀)
배서영(수술간호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박인자(수술간호팀)
정혜민(내과간호2팀)

캔버스 북커버
윤세정(암병원간호2팀)
윤아미(수술간호팀)
이승희(암병원간호1팀)
이회경(내과간호1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김희철(영상의학팀)
김경희(심장검사팀)
김지혜(진단검사의학팀)
김한식(중앙공급팀)
정은희(외래간호팀)



한마음 한뜻... 이룬둥이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신생아들을 치료하며 새 삶과 희망을 전해왔다. 특히 학계에서 용어조차 확립되지 않았을 정도로 드문 500g 미만 이룬둥이도 최근 5년간 35명이 우리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며, 이룬둥이 치료 선두 주자로 알려진 일본과 유사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존율을 기록했다. 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과 신생아과, 산부인과, 소아외과 등 관련 진료과의 다학제 협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다. 우리 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인 62병상의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며 신생아 치료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사진은 '세계 이룬둥이의 날'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배경으로 신생아과,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이 아기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치료 의지를 다지며 11월 25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2면)

우리 병원은 지난 35년간 약 2만 명의 이룬둥이와 선천성 기형을 가진 중증

04 NEWS 인도네시아 의료봉사서 주민 1천 명 진료

10 잡(job)·담(談) 안전한 입원을 위한 첫 관문

15 마음건강노트 원활한 협업을 위한 마음가짐

16 문화·생활정보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직원식당 메뉴 'TOP 10'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35년간 신생아 2만 명 치료… 다학제 협진 성과



신생아과 이병섭 교수(오른쪽 세 번째)를 비롯한 의료진이 환아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 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은 지난 35년간 약 2만 명의 환아를 치료하며 이른둥이와 선천성 기형을 가진 신생아들에게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연평균 약 130명의 1,500g 미만 신생아가 치료받고 있으며 이들의 생존율은 90%에 이른다. 그중 1,000g 미만 신생아는 60여 명으로 이들의 생존율도 약 85%에 달한다. 특히 출생체중 500g 미만인 경우는 학계에서 용어조차 확립되지 않았을 정도로 드물지만, 우리 병원은 최근 5년간 35명의 500g 미만 이른둥이 중 23명이 생존해 66%의 생존율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평균 생존율 35%를 크게 상회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른둥이 생존율을 보이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른둥이뿐 아니라 선천성 질환을 가진 신생아도 NICU 치료대상이다. NICU에 입원하는 신생아 중 약 48%는 선천성 심장병을 포함해 위장관 기형, 뇌 및 척수 이상 등 선천성 질환이나 희귀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아 고도의 전문적 치료가 요구된다. 그중 1,500g 미만의 작은 이른둥이가 선천성 기형을 동반한 경우도 12%로 국내 평균 4%의 세 배에 달한다.

우리 병원 NICU에 선천성 기형을 가진 신생아들이 많은 이유는 산부인과 태아치료센터를 통해 고위험 산모와 산전 기형 진단을 받은 태아들이 집중적으로 전원되기 때문이다. 산부인과는 태아 단계에서부터 선천성 심장병, 횡격막 탈장 등 중증 기형을 조기에 진단하고, 분만 후 즉각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신생아과와 긴밀히 협력해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또한 NICU에 상주하는 전담 약사, 전담 영양사가 중증 및 희귀질환 신생아에게 적합한 맞춤 진료를 제공해 치료 효과를 더하고 있다.

이병섭 신생아중환자실장(신생아과 교수)은 “출생체중 500g 미만의 이른둥이 생존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간호팀을 비롯한 의료진의 노력과 다학제 협진의 성과다. 최근 소아 전문 분과와 지역 신생아중환자실의 진료여건이 어려워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위험 신생아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더 아늑한 진료환경에서 가족 중심 진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림프계 질환 우수 센터 국내 첫 인증

우리 병원이 림프계 질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단체인 ‘림프계 교육 연구 네트워크(LE&RN, Lymphatic Education and Research Network)’로부터 포괄적 우수 센터 인증을 최근 획득했다.

림프계 교육 연구 네트워크는 림프계 질환 연구 및 치료, 연구 역량 전반에서 최고 수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포괄적 우수 센터 인증을 수여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병원과 스탠포드대학교병원 등 전 세계 우수 의료기관 20곳이 인증을 받

았는데, 국내에서는 우리 병원이 최초로 이 인증을 획득했다. 우리 병원은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등 여러 진료과가 협진하는 다학제 진료 시스템 구축, 림프계 질환 수술 인력 및 전문성, 공인 림프 부종 치료사 상주, 유전자 진단 및 컨설팅 등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미국, 독일 등 25여 개국 1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림프부종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수술 노하우를 해외로 알리고 있는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암병원주사실2 개소



암병원주사실2 운영 시작을 앞두고 11월 27일 열린 개소 기념식에서 박승일 병원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암병원주사실2가 12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서관 6층에 마련된 암병원주사실2는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까지 운영된다.

암병원주사실2는 항암제와 면역치료제 등 고난도 주사치료를 중증 환자들에게 한곳에서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진료과에 따라 동관, 신관 등 서로 다른 주사실에서 치료가 진행되고, 환자 수 증가로 혼잡도가 높아져 환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암병원주사실2 개소를 통해 ▲항암 프로토콜 처방 적용, 항암제 처방 검수 전담 인력 운영을 통한 환자안전 강화 ▲수용가능 환자 수 증가 ▲투약시간 예약제 도입에 따른 대기시간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일 병원장은 “우리 병원을 찾는 암 환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체담도암 심포지엄



체담도암 심포지엄에서 연자로 참여한 의료진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체담도암 심포지엄이 11월 14일 동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담도암 약물치료의 최신 지견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체장암의 병리학적 및 분자학적 변화 ▲체장암 다유전자 위험도 점수모델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태원 암병원장은 “체담도암은 조기 진단의 어려움, 높은 전이율, 제한적인 치료법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는 분야다. 앞으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학유전학센터 심포지엄



의학유전학센터 심포지엄에서 서울주 의학유전학센터소장(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학유전학센터 국제심포지엄이 11월 15일 아산생명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전문가 130여 명이 참석해 ▲염색체 마이크로레이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과 새로운 기법 소개 ▲유전성 안질환에 대한 유전학적 특징과 유전자 치료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주 의학유전학센터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희귀 유전질환을 연구하는 여러 의료진이 서로의 경험과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의료봉사서 주민 1천 명 진료



인도네시아 의료봉사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 의료봉사단이 11월 18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에는 의사 5명, 간호사 21명, 보건직 4명, 사무직 2명 등 총 32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복수 마트라주 브라스타기에 있는 카반자에 병원에 치료시설을 마련해 주민 1,030명을 진료했다. ▲익상편제거술 49건 ▲백내장 수술 14건 ▲외과수술 11건 등 수술·시술 75건 ▲초음파 51건 ▲엑스레이 54건 ▲혈액·소변검사 150건 등도 진행했다. 의료봉사단 팀장을 맡은 호흡기내과 이세원 교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인술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복합 심장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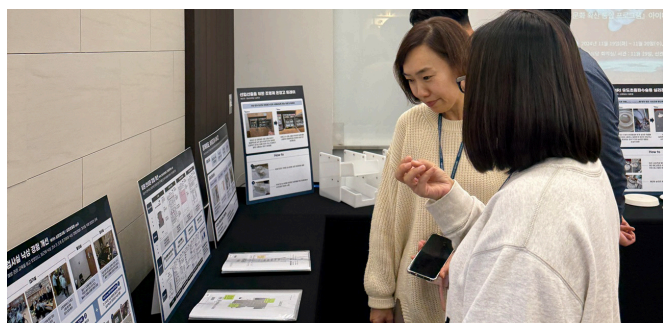


11월 28일 열린 복합 심장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에서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왼쪽 첫 번째)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젊은 심장 의학자들에게 세계 석학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제9회 COMPLEX PCI 2024(복합 심장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가 11월 28일부터 이틀간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개최됐다. ‘Make it simple! : Technical Forum A to Z’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회에는 전 세계 26개국 540여 명의 심장 전문가가 참여했다. 특히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 박덕우 교수, 안정민 부교수를 비롯해 싱가포르의 파임 하이터 자파리 교수, 일본의 타카시 아카사카 교수 등 세계적 심장 전문의들이 심혈관 분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최신 의료지식을 강의했다. 라이브 시술 세션에서는 총 14건의 케이스가 실시간으로 중계돼 큰 관심을 끌었다.

아이디어 스페이스 개최



아이디어 스페이스 전시회에서 직원들이 전시 작품을 둘러 보고 있다.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가 11월 19일부터 이틀간 서·신관 직원 식당에서 아이디어 스페이스 전시회를 개최했다. 아이디어 스페이스는 보다 나은 환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직무 관련 아이디어 제안, 실행을 독려하는 ‘제안제도’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는 ‘아이디어 팩토리’ ▲고객 경험 개선 아이디어를 함께 실행해 보는 ‘아이디어 AMC’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수제안 수상자들의 제안 내용, 프로토타입 실물 등이 소개됐다.

제36회 아산상 대상 ‘베데스다 메디컬센터 임현석 원장’

정몽준 이사장 “어려운 이웃 위해 헌신하는 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 더욱 따뜻해져”



제36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뒷줄 왼쪽에서 아홉 번째)과 재단 이사들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산재단은 11월 25일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제36회 아산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아산상은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1989년 제정됐다. ▲대상인 아산상은 지난 24년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인술을 실천하며 약 40만 명의 소외지역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온 베데스다 메디컬센터 임현석 원장(남, 59세)이 수상했다. 임현석 원장은 2000년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나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2002년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베데스다 클리닉을 세운 뒤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메디컬센터로 발전시켰다. 임 원장은 의사가 없는 지역과 난민정착촌을 찾아다니며 의료봉사에도 힘썼고, 뇌전증 클리닉을 개설하고 물라고 국립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뇌전증 치료와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의료봉사상은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의료 사각지대 환자들을 위해 무료진료병원인 요셉의원, 전진상의원, 라파엘클리닉에서 지난 51년간 의료봉사를 하며 3만여 명의 환자를 치료한 요셉의원 고영초 원장(남, 71세)이 수상했다. 고영초 원장은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주말과 야간시간을 이용해 환자들을 치료했다. 2023년 은퇴 후에는 요셉의원의 원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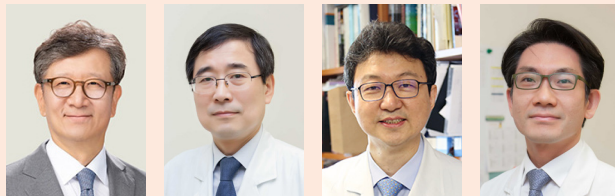
취임해 고령의 노인과 거동 불편 주민들을 찾아가는 방문진료에 힘쓰고 있다.

▲사회봉사상은 26년간 개발도상국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과 역량강화에 기여한 국제개발 NGO 지구촌나눔운동(이사장 김혜경)이 수상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1998년 설립된 국제개발 NGO로 일시적인 해외 구호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지원 방식에 중점을 두고 농촌과 도시 빈민, 장애인,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어려운 이웃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수상자 15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아산상은 3억원, 의료봉사상과 사회봉사상은 각각 2억 원,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은 각각 2,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의 활동 내용과 공적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어려운 이웃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수상자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해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아산재단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미력이나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 정

종양내과 의료진 '세계 상위 1% 연구자' 선정



강윤구 명예교수 김상위 교수 김성배 교수 이재련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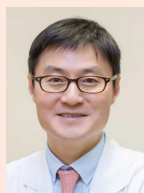
종양내과 강윤구 명예교수, 김상위·김성배·이재련 교수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s, HCR)'로 선정됐다. 글로벌 학술정보 기업인 클래리베이트(Clarivate)는 논문 피인용 수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피인용 상위 1%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를 선정해 매년 발표한다. 강윤구 명예교수와 김상위·김성배·이재련 교수는 모두 임상의학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채희동 교수 그레이스 학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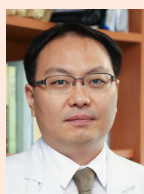
산부인과 채희동 교수가 11월 17일 열린 대한폐경학회 62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인 그레이스 학술상을 받았다. 채 교수는 '성선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작용제 치료 중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의 변화'를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김성훈 교수 대한자궁내막증학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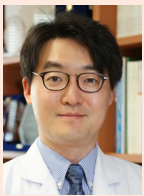
산부인과 김성훈 교수가 최근 열린 대한자궁내막증학회 제15차 학술대회에서 제6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교수는 대한자궁내막증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자궁내막증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과 자궁내막증 임상지침 개발에 힘써 왔다. 김 교수의 임기는 2024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2년간이다.

정석훈 교수 한국정신중앙학회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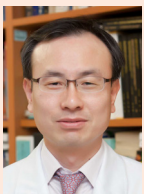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 교수가 11월 15일 열린 한국정신중앙학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정신중앙학회는 암 환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학회다. 그동안 회장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내년부터 이사회 체제로 변경될 예정으로, 정 교수가 초대 이사장을 맡게 됐다. 정 교수의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신진우 교수 대한통증학회장



마취통증의학과 신진우 교수가 11월 15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통증학회 제78차 학술대회에서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통증학회는 대한의학회에 등록된 유일한 통증 연구 학회로 1986년 발족 이후 통증의학 분야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해 왔다. 신 교수의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임상약리학과 연구진 학회서 수상



배군섭 교수



최승찬 연구원



서지영 연구원

임상약리학과 연구진이 11월 13일부터 4일간 열린 대한임상약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배군섭 교수는 약동학 비구획분석, 임상시험 자료분석을 위한 저술과 R 패키지 다수 개발 등을 통해 임상약리학, 신약개발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촌상 최우수연구자상을, 최승찬 연구원은 '생리학적 기반 약동학 모델을 사용한 자스타프라잔과 세레코시브 간의 약물-약물 상호작용 가능성 평가'를 주제로 최우수포스터상을, 서지영 연구원은 '이벤트 발생 시간 모델을 활용한 에페글레나타이드에 의한 이상반응 패턴 분석'을 주제로 인기포스터상을 받았다.

안강민 교수, 이상민 레지던트 구연발표최우수상



안강민 교수



이상민 레지던트

치과 안강민 교수(구강악안면외과)와 이상민 레지던트가 11월 8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63차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구연발표최우수상을 받았다. 안 교수와 이 레지던트는 '상악에 발생한 구강편평세포암의 경부 전이와 선택적 경부 절제술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이승훈 교수 연구상



내분비내과 이승훈 교수가 11월 8일부터 이틀간 열린 대한골대사학회 제36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연구상을 받았다. 이 교수는 '대사체 기반 근감소증 진단용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증'이라는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 학회서 수상



김형태 교수



최성수 부교수



김찬식 조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이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김형태 교수와 최성수 부교수는 11월 7일부터 3일간 열린 제101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근 3년 동안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공식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이 세계 유명 학술지에 대거 인용돼 학회와 학술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KJA 학술상을 받았다. 김찬식 조교수는 11월 15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통증학회 제78차 학술대회에서 '경추 신경근통증 환자에서 경추 경막외블록의 임상 현황: 다기관 설문 조사 연구'를 주제로 대한통증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젊은연구자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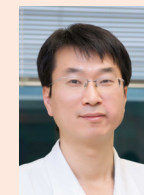
성형외과, 심장내과 의료진 올레의 최우수 논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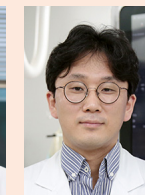
서현석 부교수



홍준표 교수



이승환 교수



이필형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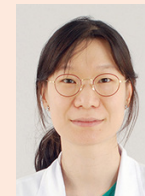
성형외과 서현석 부교수, 홍준표 교수, 심장내과 이승환 교수, 이필형 부교수팀이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하지 재건 분야 올레의 최우수 논문상'을 3년 연속 받았다. 이 상은 미국성형외과학회가 성형재건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성형재건학회지(PRS) 게재 논문 중 평가점수, 조회수 등 지표를 종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연구팀은 '재개통된 혈관을 이용한 당뇨발 재건: 혈관변환 하지의 재건 한계를 넘어서'를 주제로 한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김형배 임상전임강사 젊은연구자상



성형외과 김형배 임상전임강사가 11월 17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성형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PRS 2024)에서 젊은연구자상을 받았다. 김 임상전임강사는 적극적인 연구활동으로 우수한 연구업적을 달성해 성형외과 분야 기초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외과 의료진 학회서 수상



윤영인 부교수



강지훈 임상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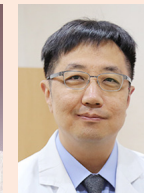
김진명 임상강사

간이식·간담도 외과, 신·체장이식외과 의료진이 11월 14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ATW 2024)에서 수상했다. 간이식·간담도외과 윤영인 부교수와 강지훈 임상강사는 '성인 생체 간이식에서 문맥 혈류 도난 방지를 위한 비신정맥 단락의 좌신정맥 결찰 후 20년 추적 관찰 결과'를 주제로, 신·체장이식외과 김진명 임상강사는 '신장 이식 수혜자에서 수술적 개입이 필요한 장 합병증: 임상적 특성과 위험 요인'을 주제로 각각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한편 김 임상강사는 최근 열린 대한외과학회 제76차 추계학술대회(ACKSS 2024)에서 '새로운 비침습적 자연 세포성 체액 활성화 검사를 이용한 신장이식 체액성 거부반응 탐구: 선형 항체를 기반으로 한 계층적 접근법'을 주제로 우수연구자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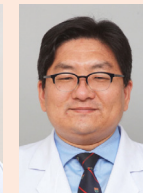
소화기내과, 의공학연구소 의료진 학회서 수상



변소영 진료전임강사



정기욱 교수



주세경 교수



최경민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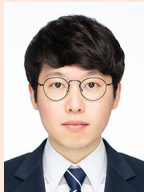
소화기내과 변소영 진료전임강사, 정기욱 교수, 의공학연구소 주세경 교수, 최경민 연구원팀이 11월 14일부터 3일간 열린 제8차 소화기 연관학회 국제학술대회(KDDW 2024)에서 KGFID 학술상을 받았다. 연구팀은 '고해상도 식도 내압검사상 식도벽 비대를 동반한 반복적 동시 수축을 보이는 연하곤란 환자: 4차원 역 임피던스 플롯을 통한 무증상의 건강한 피험자와의 비교'를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정현철 임상강사 장려상



신경외과 정현철 임상강사가 11월 9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성의교정에서 열린 제15차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정 임상강사는 '간이식 후 뇌동맥류 파열 위험: 출혈성 뇌졸중 점수 모델의 개발 및 검증'을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곽중일 임상강사 젊은연구자상



소아청소년과 곽중일 임상강사가 최근 독일 뷔르츠부르크에서 열린 제10회 신생아학 최신지견 국제심포지엄에서 ‘선천성 횡격막 탈장에서 동맥관 개존증 혈류 방향을 통한 예후 예측’을 주제로 젊은연구자상을 받았다.

성숙경 국제교류팀장 서울특별시장 표창



성숙경 국제교류팀장이 최근 열린 ‘서울의료관광 파트너스데이 2024’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받았다. 성 팀장은 해외기관과의 협력 확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통해 외국인 진료 체계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임영주 유닛 매니저 질병관리청장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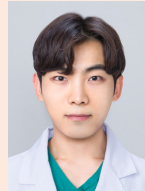


감염관리팀 임영주 유닛 매니저가 11월 21일 열린 2024 감염병관리 콘퍼런스에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 임 유닛 매니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수술간호팀 의료진 학회서 수상



강점인 차장



차주송 주임

수술간호팀 의료진이 최근 열린 병원수술간호사회 제35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강점인 차장과 수술지원 유닛 응급수술 지원팀은 수술간호의 전문성 향상에 각각 간호인재상과 간호업무상을 받았고, 차주송 주임은 수술

실 ESG 실천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정림 차장 올해의 당뇨병 교육자상



외래간호팀 이정림 차장이 11월 11일 열린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4년 올해의 당뇨병 교육자상을 받았다. 이 차장은 당뇨병환자 교육에 종사하며 당뇨병 교육 발전과 당뇨병 관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양경아 차장 우수구연학술상



외과간호2팀 양경아 차장이 11월 9일 열린 대한연하장애학회 제15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학술상을 받았다. 양 차장은 ‘부분후두절제술 환자의 침상 연하재활일지 개발과 적용’을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인사

보직임명

아산의료원	의료원장	박성욱	임 : 의료원장(연임)
서울아산병원	병원장	박승일	임 : 병원장(연임)
서울아산병원	교수	김태원	임 :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 2025. 1. 1부.

아산의료원

정읍아산병원	산부인과	이필량	임 : 보령아산병원장
홍천아산병원	병원장	남기호	임 : 병원장(연임)
보성아산병원	병원장	최병진	임 : 병원장(연임)
금강아산병원	병원장	김형국	임 : 병원장(연임)
영덕아산병원	병원장	박정규	임 : 병원장(연임)

- 2025. 1. 1부.

이달의 후원자

개인 및 단체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박성수	1,000,000원
백상호	10,000,000원
법무법인 율	10,000,000원
서울아산항외과의원	10,000,000원
신안종합건설	300,000,000원
양성운	100,000,000원
전현옥	300,000원

정광조명산업(주)	10,000,000원
(주)관악	200,000,000원
한솔섬유(주)	100,000,000원

불우환자 지원

권보아	200,000원
김태리	200,000원
더엘산부인과	10,000,000원

장현중	1,000,000원
전계정	1,000,000원
(주)도하에듀	10,000,000원
최병조	5,000,000원

- 2024년 11월 14일 기준, 가나다 순

※ 문의 :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원내 6207)

사회복지팀·장기이식센터·의료정보관리팀

“생체장기이식 준비 과정이 편리해졌어요”

사회복지팀에서는 생체 장기기증 수술을 앞둔 기증자와의 면담을 통해 순수성 평가를 진행한다. 모든 자료를 수기로 작성하고 보관해 온 터라 진료과와 병동의 의료진은 상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환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장기기증에 관련된 모든 직원이 환자에 대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현대의학의 꽃’이라도 불리는 생체 장기이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아있는 장기기증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KONOS)의 승인이 있어야 기증을 할 수 있다. 우리 병원에서는 사회복지팀에서 기증자의 순수한 기증 의사를 확인하는 상담을 진행한 뒤 ‘장기기증 상담평가서’를 작성해 장기이식센터에 전달하고, 장기이식센터가 KONOS로 서류를 전송해 승인을 받는 절차로 업무를 진행해 왔다. 문제는 이 상담평가서 내용을 유관부서 담당자 및 의료진과 공유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사회복지팀은 담당자 PC에 저장돼 있는 상담평가서를 출력해 문서철로 보관해 왔는데, 환자의 상태와 상담 경과 등을 자주 살펴야 하는 장기이식센터와 진료과, 병동 의료진은 이식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수시로 전화와 메시지로 문의할 수밖에 없었다. 일일이 문서로 출력해 보관하는 것 역시 사회복지팀 담당자에게는 적잖은 부담이었다.

환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팀과 장기이식센터는 직원 누구나 AMS 3.0를 활용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리고 의무기록 서식을 담당하는 의료정보관리팀에 상담 기록 작성과 확인이 가능한 서식 개발을 요청했다. 상담평가서 양식을 화면상에 그대로 옮기고, 출력했을 때 A4 한 장에 모든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테스트와 수정을 반복했다. 몇 달의 개발 과정을 거쳐 ‘사회복지상담’ 의무기록 전산 화면이 완성됐다. 효과는 금방 체감할 수 있었다. 이식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 누구나 필요할 때 상담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수술 일정



장기이식센터의 표어인 ‘앞선 의학 나누는 사랑, 이식으로 새 삶과 꿈’ 글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 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장기이식센터 홍정자 유닛 매니저, 사회복지팀 최대한 주임, 의료정보관리팀 윤진희 과장, 장기이식센터 김인옥 차장, 사회복지팀 박종란 차장.

이 갑자기 바뀌어 KONOS 재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됐다. 사회복지팀도 출력물로 3년씩 보관해 오던 수고로움을 덜게 됐다. “필요할 때 언제든 환자의 상담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되니 행정 업무에 드는 시간과 수고를 줄이고 환자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식과 관련된 담당자 모두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으니 이식수술을 위한 준비도 더욱 수월해졌죠.” - 사회복지팀 박종란 차장

앞으로도 계속되는 협업

사회복지팀과 장기이식센터는 살아있는 기증자의 본인 확인 과정에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병동과 수술실, IT전략팀 등 많은 유관부서들과 진행하는 또 다른 협업의 과정이다. “생체이식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수많은 부서가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환자 안전과 업무의 효율 모두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장기기증과 생명 나눔의 아름다움이 더욱 퍼져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장기이식센터 홍정자 유닛 매니저

※ 병원보에서는 ‘협업의 가치’ 코너를 통해 다양한 직종, 부서 간 협업 사례를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협업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안전한 입원을 위한 첫 관문

입원지원센터 권지혜 과장



권지혜 과장이 입원지원센터 접수대에서 입원 환자의 등록을 돕고 있다.

10개 진료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감염 위험성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입원 전 감염관리 체계

오전 9시. 입원지원센터에 환자들이 하나둘 들어선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등 10개 진료과의 입원 수속을 앞둔 환자들이다. 하루 평균 100~130명의 환자가 이곳에서 신체 계측과 감염 관련 문진, 선별 검사를 받고 파종성 대상포진, 결핵, 유행성 감염병 등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유무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노출자 관리와 입/퇴실 제한 등을 결정하고 입원 수속이나 재검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접수대에서 환자 등록을 돕던 권지혜 과장은 환자의 전신쇠약감을 눈치채고 면밀히 살폈다. 오랜 대기가 어렵겠다는 임상적인 판단으로 즉시 혈압 측정과 각종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올해 입원환자 수는 줄었지만 환자들의 중증도가 올라가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는 긴장감이 높아졌다.



모든 게 처음이라 하나하나 고민하며
입원지원센터의 체계를 다졌어요.

성장을 함께하며

입원지원센터는 감염 제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0년에 문을 열었다. 감염으로 인한 환자 위험과 병동 폐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센터다. 신경과 외래에서 근무하던 권 과장은 당시 유닛 매니저의 추천으로 합류해 모든 준비 과정에 참여했다. 책상 위치와 시트지 색상 선정부터 센터 간호사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센터가 오픈하고 난 이후에는 표준화된 업무 체계를 다져나갔다. 직원마다 기준과 역량이 다르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센터 특성상 항시 동일한 대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정보조사지의 내용을 일괄 정리하고 스마트바를 이용해 상용 문구를 입력했다. 혈압이 낮거나 저산소증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한 환자의 초기 대응이나 재측정, 병동 보고 등을 끊임없이 개선하면서 진료 연속성까지 높일 수 있었다.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권지혜 과장.

“
환자 안전을 위한 과정이지만
몸이 힘든 환자분들께 죄송스럽기도 해요.”

감염병 차단을 위한 노력과 설득

매일 반복되는 문진과 검사 과정이지만 하루도 같은 날은 없다. 권 과장은 대기 공간 상황과 환자 상태,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 등을 고려해 원활한 흐름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환자 안전을 위한 과정이지만 번거로운 절차와 기다림이 환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선별 진료소 업무를 도우면서 입원을 방해하는 절차로 인식한 환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권 과장은 환자 입장을 심분 공감하며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 “힘드신 거 이해합니다. 그래도 나쁜 아니라 내 옆의 환자도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고 다 같이 안전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는 병원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최근 혈액종양내과 면역 저하 환자가 방문했다. 파종성 대상포진이 의심되지만 환자는 피부 병변과 호흡 곤란 증상 등으로 검사 결과를 마냥 기다리기 힘든 상태였다. 감염내과 교수와 감염전파 위험성을 확인한 후 병동에 선제 격리를 요청했다. 병동 의료진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와 접촉했다. 이후에 나온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호흡기바이러스 감염과 파종성 대상포진 확진이었다. 입원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입원한 시점부터 미리 격리해 노출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감염관리실의 감사 인사는 감염병 차단에 일조했다는 값진 보람으로 다가왔다.



권지혜 과장(왼쪽)이 임은영 유닛 매니저와 업무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
환자 한 명을 돌보는 데
온 병원의 도움이 필요해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업

CPE 양성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병동 상황이 여의찮아 입원이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활력징후에 이상징후를 보이는 환자라 e-MET를 호출해 응급실로 옮겼다. 두 달간 60건의 e-MET 지원을 받을 만큼 중증 환자가 많다. 환자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나날이 커지는 걸 실감하는 부분이다.

환자에 대한 책임감은 여러 부서와의 소통과 협업으로 나눠 갖는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해 1시간마다 검사를 진행해 주는 진단검사의학팀, 핫라인으로 환자들의 수속 대기를 줄여주는 원무팀, 환자의 체위를 바꿔주거나 이송을 돕는 보안관리팀, 병동까지 입실을 도와주는 환자이송반, 환자 대응을 협의하는 응급실과 병동 등 입원지원센터의 요청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도우려는 부서들에 권 과장은 큰 힘을 얻곤 한다. 그에 대한 보답은 환자에게 이어진다. 어디선가 잘못 안내를 받은 환자가 입원지원센터에 들렀다. 권 과장은 안내한 부서로 환자를 되돌려 보내는 대신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라며 필요한 내용을 묻고 답했다. ‘오늘 이 환자예겐 내가 서울아산병원의 대표’라는 마음으로 환자의 안전과 회복을 비는 병원 구성원들의 숨은 노력이 잘 전해지길 바랄 뿐이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최소 훈련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 병원에는 숨은 전문가가 많습니다. ‘잡(job)·담(談)’ 코너는 각 분야 전문가에게서 일의 수고와 기쁨을 들어봅니다.

고양이와 정신건강 ③

고양이?
망설이는 그대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신용욱 교수

지난 글을 읽고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고 하신 분이 있었다. 이번 글은 그렇게 고양이를 집에 들일지 망설이는 분에게 드리는 글이다.

첫째, 배우자나 배우자가 될 사람과 고양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미혼 여성이라면 상대 남성이 당신을 ‘아이 없는 고양이 아가씨childless cat lady’라며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다른 지나치게 썩썩하고 고양이만 아는 여성이라 오해할 수 있다. 당신이 남성이라면 쉽게 눈물이나 쏟는 나약한 남성이라 취급 받을 수도 있다.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고양이는 매우 독립적인 동물이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은 개와 고양이를 비교하며 “개는 더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그리고 나쁘게 대할수록 더욱 잘하려고 애쓰며 아침하는 노예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고양이는 한 번 잘못 대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을 멀리하고 다시는 전적인 신뢰를 주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가 조심성 없게 고양이를 만지거나 쓰다듬으면 진저리를 치며 도망기는 일이 흔하고,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물기까지 한다. 그래서 편한 점도 있다. 개처럼 매일 산책을 시켜달라고 떼를 쓰지도 않고, 목욕을 시키지 않아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 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소변을 아무 곳이나 보는 일도 없다. 고양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대소변을 가리며, 좁은 아파트에서도 이웃에 폐를 끼치지 않고 아무 문제없이 조용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개를 키우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고양이와 함께 사는 데 어느 정도 각오는 필요하다. 특히 어린 고양이를 키운다면 말이다. 어린 고양이는 생명력 그 자체이며 마치 바람 같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고양이에 관한 다양한 글을 남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캣츠〉가 그의 글에서 탄생했다. T.S. 엘리엇은 그의 작품 〈맥커비티: 미스터리 고양이〉[Macavity: The Mystery Cat]에서 고양이를 이렇게 묘사한다.

… 중력의 법칙도 어겼어요, 고양이의 공중부양 능력은 귀신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범죄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고양이는 거기 없지요, …

어린 시절의 행복이도 자기 키의 몇 배나 되는 높이의 손잡이 문을 마음대로 열었다. 숨바꼭질을 좋아해 옷장으로 숨어들어가 옷들을 털 범벅으로 만들곤 했다. 그 외에도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 놀이를 무척 즐겼다. 책상 위로 올라가 책을 모조리 바닥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한밤중 ‘와장창’ 소리에 놀라 거실로 나가보면 유리컵이 바닥에 박살 나기도 했다. 물론 행복이는 항상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기에 우리는 행복이가 범인이라는 심증만 가질 뿐이었다.

둘째, 경고하건대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가족 간 이견과 불화가 생긴다. 도대체 이 고양이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양이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누구도

고양이에게 가장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리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고양이가 싫어하는 행동 임에도 강아지처럼 “손!” 하면서 고양이를 훈련시키는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사랑을 못 받는 거야”라고 말하다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 살고 있다니”라는 푸념을 들을 각오를 해야 한다.

물론 나는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고양이에게 매료된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고양이를 보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사람들은 눈 주위의 검은 테두리를 따라 그리는 고양이 마스크라를 흉내 내곤 하지 않는가? 고양이의 양증맞은 핑크빛 콧잔등은 보는 이를 미소 짓게 한다. 고양이의 그 어떤 행동도 완전히 자연스럽게 우아하다. 물론 아주 드물게 고양이만큼 멋진 외모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양이는 항상 그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 고양이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환상을 깨지 않는다.

그러나 동물을 키운다고 하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점은 바로 ‘죽음’이다. 고양이의 수명은 아무리 길어도 20년을 넘기 어렵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번 글을 쓰며 코리안 쇼트테일의 평균 수명을 찾아보니 행복이는 이미 통계적으로 살 수 있는 수명을 넘어서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행복이가 다리를 절더니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이제는 테이블에 오르거나 문을 여는 일도 하지 않는다. 계단을 내려갈 때도 약간의 턱을 앞에 두고 신중히 저울질하며 엉거주춤 내려간다. 앞서도 말했듯 고양이는 독립적이고 썩썩한 존재라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더욱 마음 아프다.

그러나 나이들었다고 해서 행복이가 그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상실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린 시절 함께 자란 고양이 ‘단쓰’를 주인공으로 하는 동화책을 썼다. 그는 세상의 모든 고양이 중 늙은 암고양이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어렸을 적 학교를 마치고 오면 늙은 암고양이 몸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으며 햇볕 아래 처마에 누워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한다. 하루키는 태양의 온기를 머금은 늙은 고양이의 털이야말로 생명이 지닌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했다. 나 역시 나이 든 행복이가 내 배 위에 올라타서 그르렁그르렁 거리는 것을 느끼며 생명이 지닌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경험한다.



어린 시절 무라카미 하루키와 고양이.

나에게는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심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치료 받으러 오는 분들이 적지 않다. 더불어 지내던 존재가 사라진 빈자리는 건디기 어려운 상실감을 남기고, 생명과 삶의 무상함을 깨닫는 동시에 실존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한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영원히 곁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과, 생명이 얼마나 연약하고 위태로운지, 동시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깨워준다. 수웅과 이별의 과정을 겪는 일은 고통스럽다. 나 역시 행복이가 없는 집을 상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행복이가 없다면 콧물, 코막힘 같은 알레르기 증상도 사라지고, 옷이나 소파에 묻어 있는 고양이 털도 없어 깨끗할 것이다. 새벽마다 귀찮게 일어나 밥을 챙기고 모래를 갈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이가 없는 집은 무언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 빠져버린, 아아 ‘행복이가 없는’ 집일 것이다.

※ ‘이야기가 있는 산책’ 코너는 필자의 전공 분야와 인접한 주제 또는 평소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피은 분야를 산책하듯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서른 번째 필자로 정신건강의학과 신용욱 교수가 ‘고양이와 정신건강’을 주제로 3편의 글을 연재했습니다. 1월부터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도슨트로 활동한 특수검사팀 유상수 과장이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미술’을 주제로 3편의 글을 연재합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하기 위해 걷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산책’처럼 이 코너를 통해 마음의 휴식과 건강을 챙기길 바랍니다.

경추경나사못과 5.5mm 막대를 이용한 고정술의 효과 분석



신경외과 장선우 임상강사

신경외과 장선우 임상강사는 제4회 대한척추중양연구회-대한척추중양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경흉추 이음부에 위치한 전이성 척추중양의 전방 척추체 절제술과 5.5mm 막대를 이용한 후방고정술의 비교’를 주제로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 결과는 ‘경추경나사못과 5.5mm 막대를 이용한 후방고정술’이 기존 수술법보다 안정적임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Q. 연구의 배경은? 경흉추 이음부는 유동관절인 경추와 상대적으로 고정된 관절인 흉추의 이행부이다. 따라서 다른 척추 부위보다 더 강한 고정력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고정 방법은 ‘전방 척추체 절제술’과 ‘후방 경추 외측과 나사못과 3.5mm 막대를 이용한 다관절고정술’이다. 전방 척추체 절제술은 척추체의 병변을 직접 제거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고정력에 한계가 있고, 다관절고정술은 상대적으로 약한 나사못과 얇은 막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마디 관절을 고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법인 ‘경추경나사못과 5.5mm 막대를 이용한 후방고정술’의 우수한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Q.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 경추경나사못 수술법은 추골동맥과 신경 손상의 위험도가 높아 그동안 잘 시행하지 않았다. 수년전부터 우리 병원 신경외과 박진훈 교수팀은 경추경나사못 프리핸드 테크닉을 활용한 안전한 방법을 보고해 왔다. 최근 연구에서는 경추에서 5.5mm 막대와 호환되는 큰 경추경나사못을 사용해 적은 마디로도 더 강한 고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연구

에서는 경흉추이음부에서 다른 전통적인 수술법인 전방 척추체 절제술과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수술법의 안정성도 확인해 보았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경흉추 이음부 전이암 수술을 받는 환자 3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방 척추체 절제술을 받은 그룹 12명과 경추경나사못과 5.5mm 막대 후방고정술을 받은 그룹 23명으로 구분해 시행했다. 그룹별로 임상적 특징, 수술 결과, 수술 후 장기관찰과정에서 확인된 영상학적 소견과 합병증 등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경추경나사못과 5.5mm 막대 이용 고정술 그룹은 전방 척추체 절제술 그룹보다 추적관찰 과정에서 척추가 앞으로 굽어지는 후만변화가 적게 발생했고 기구 적용 실패로 인한 재수술률도 낮았다.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향후 경흉추 이행부의 병변 치료에는 우리 병원 신경외과만의 새로운 수술법인 경추경나사못과 5.5mm 막대를 이용한 후방고정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척추 종양 뿐 아니라 외상, 감염 등 다른 질환에서도 이 수술법을 적용하고 효과를 증명해 검증된 새로운 고정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 나갈 것이다.

※ 우리 병원이 내놓은 여러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보에서는 ‘연구노트’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원활한 협업을 위한 마음가짐



건강의학과 안명희 조교수



일을 하다 보면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업하는 것이지만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업무 분장, 목표, 방향성, 속도, 보상 등을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업무 분장이 명확한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으며 어느 정도 일을 진행하면서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음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다양한 직군이 함께 일하는 경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다르고 자신의 입장을 최우선에 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나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직 내에서 개별 부서끼리 각자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부서 이기주의인 사일로 효과(Silo effect)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일로는 곡식 저장 창고를 뜻합니다.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 차 있긴 하지만 창고들은 서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업무가 단절되고 협업이 되지 않는 회사를 빗댄 말입니다.

서로 벽을 쌓고 소통하지 않는다면 원만한 협업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A 부서에 있을 때는 B 부서의 업무처리 방식이 비효율적이라 판단했는데 B 부서로 발령이 나서 일을 해보니 여기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원일 때는 상사의 소통 방식을 비판했으나 막상 승진을 하고 보니 이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고충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갈등 상황은 객관적인 판단

을 하기보다 매우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영역임을 자각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일을 어떻게 하면 서로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매우 중요하고 1순위인 일이 상대방에게는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입장을 완전히 이해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전달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내 일이라면 업무 몰입도가 높을 수 있지만 도와주는 입장이라면 공은 없이 에너지만 쏟는 일일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쪽에서는 감사를 표하고,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어느 수준까지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전달해 기본 업무가 달라질 정도의 영향은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감정이 섞이게 되면 순식간에 업무 갈등이 감정 갈등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의 성격, 성향에 대한 언급이나 과거의 묵은 감정이 나올 것 같을 때는 대화를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괜한 기싸움이 벌어지거나 서로 자존심을 건드려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이후로는 소통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소통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함께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함이므로 공동의 목표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꽃밭은 꽃의 크기, 모양, 색깔, 향기가 다양할수록 풍요롭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서로 다른 역할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갈등을 잘 풀어내고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안명희 조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2017년 건강의학과에 입사해 스트레스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지기’ 담당교수로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직원식당 메뉴 ‘TOP 10’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나왔으면! 아산넷 게시판에서
‘오늘의 중식/석식 메뉴’를 열어볼 때의 마음은 직원 누구나
비슷할 것이다. 올해도 다양한 직원식당 메뉴가 맛있고
행복한 식사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중에서 직원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TOP 10 메뉴를 소개한다. 더불어 직원들이
궁금해 했던 직원식당 요리 레시피를 공개하니 집에서도
맛있는 한 끼를 즐겨보자. <편집실>



직원 식당 인기메뉴 TOP 10

1위 로스티드치킨,
모듬채소볶음
(7월 4일)

7,626명

2위 돈육고추장찌개 (동관)
새우튀김덮밥 (사·신관)
(9월 2일)

7,522명

3위 토마토홍합파스타,
레몬크림소스탕수육
(9월 5일)

7,517명

4위 설계탕 (8월 22일)

5위 반마라켓날동닭 (1월 18일)

6위 전복내장볶음밥, 매운어묵찜 (8월 29일)

7위 누룽지닭죽, 동그랑땡전 (동관)

돈육불고기미나리비빔밥 (사·신관) (6월 4일)

8위 미트라따뚜이와 바게트 (7월 11일)

9위 돈육김치찌개 (동관)

홍합토마토국물파스타 (사·신관) (1월 18일)

10위 시리얼알리오올리오, 치킨가스 (2월 1일)

식수인원
7,462명

7,459명

7,445명

7,323명

7,323명

7,182명

7,130명

조사기간 2024년 1~10월 | 선정방법 당일 총 식수인원

인기메뉴 레시피

우삼겹배추찜



재료 (1인 기준)

우삼겹(양지) 200g, 배추 50g, 숙주 30g, 소금 1g, 후추 0.1g, 조선부추 7g, 간장·설탕·미향·사이다·식초 각 2큰술, 청양고추 3g, 홍고추 3g

조리법

1. 우육은 해동 후 핏물을 제거한다. 배추와 부추는 4cm 크기로 자른다.
2. 찜기에 숙주, 배추, 부추를 깔고 우육을 올린 후 미향, 소금, 후추를 뿌린다.
뚜껑을 닫고 고기가 익을 때까지 7~10분 정도 찜다.
3. 간장, 설탕, 미향, 사이다, 식초를 2큰술씩 넣고 소스를 만든다.
4.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잘게 썰고 3번의 소스에 섞는다.
5. 잘 찜진 우삼겹배추찜에 소스를 곁들여 먹는다.

재료 (1인 기준)

스파게티면 80g, 식용유 2작은술, 참나물 25g, 홍고추 2g, 오리엔탈소스 1큰술, 굴소스 2작은술, 마늘 10g, 들기름 1작은술, 치킨스톡 1g, 설탕 1작은술, 베트남건고추 0.1g, 굵은후추 0.5g, 소금 1/5작은술

조리법

1.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스파게티 면을 삶은 후 식용유에 버무려 팬에 펼쳐 식힌다.
2. 마늘은 깨끗이 세척해 0.5cm 두께로 편으로 썬다.
3. 달궜진 솥에 식용유를 두른 후 마늘, 건고추, 후추를 볶다가 매운 향이 올라오면 면수, 스파게티면, 굴소스, 들기름, 설탕, 소금, 치킨스톡을 넣고 볶는다.
4. 볼에 4cm 길이로 썬 참나물과 오리엔탈드레싱을 넣고 무친다.
5. 그릇에 스파게티를 담고 무친 참나물과 송송 썬 홍고추를 올려 먹는다.

참나물 오일파스타



치킨스테이크



재료 (1인 기준)

닭(다리살) 200g, 소금 1/5작은술, 후추 0.1g, 바질페스토 8g, 마요네즈 4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레몬주스 2/5작은술, 홀그레인머스타드 2/5작은술, 사이다 1큰술, 설탕 기호에 맞게 조절

조리법

1. 닭은 해동 후 깨끗이 세척하고 소금, 후추로 밑간하여 냉장보관한다.
2. 그리들에 식용유를 두르고 달궜이면 닭(다리살)을 노릇하게 굽는다.
3. 바질페스토, 마요네즈, 다진 마늘, 레몬주스, 홀그레인머스타드, 사이다, 설탕을 비율대로 넣고 섞어 소스를 만든다.
4. 구운 닭에 소스를 곁들여 먹는다.

Tip. 바질마요소스는 사이다로 단맛을 내기 때문에 설탕을 넣어가며 기호에 맞게 만든다.

※ 자료제공 : 총무팀 여동욱 주임



마음을 잇는 봉사활동

노숙인 생활보호시설(길가온혜명) 의료봉사

모두의 웃음이 될 작은 씨앗



감염관리팀 이진주 주임

임상 현장을 떠나 사무실에서 근무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다. 간호사로서 환자와 교감하고 환자를 위해 뛰어나던 때가 그리울 때가 있다. 그래서 의료봉사를 신청했다.



이진주 주임이 환자 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

이번에 찾은 '길가온혜명'은 노숙인들이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시설이었다. 이미 대학 시절에 노숙인을 대상으로 1년 정도 봉사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노숙인에 대한 편견은 없었다. 그곳에서 나는 접수와 혈압 측정, 예진을 맡았다.

김철수(가명) 아저씨는 유독 꾸뻑대며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 “특별한 건 없고 영양제만 좀...” 그때 뒤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감기는 왜 얘기 안 하세요!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치료도 못 받으시잖아.” 아저씨는 이제 괜찮다며 말을 아꼈다. 증상이 호전된 상태에서 약을 받는 것이 미안하고 민망한 눈치였다. 나는 재빨리 “감기 걸리셨어요? 증상이 어땠어요?” 여쭙고 기록했다. 그리고 다른 대상자들의 접수와 예진을 이어가는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려왔다. “서울아산병원 최고! 아산병원 파이팅!” 한 손은 엄지를, 다른 손은 약 봉투를 들고 김철수 아저씨가 활짝 웃고 있었다. 그 모습에 모두가 웃음을 터트렸다. 내 기록을 바탕으로 교수님께서 진료를 보고 필요할 때 복용할 감기약과 상비약을 처방해 주신 듯했다. 나의 작은 관심이 그분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모두에게는 웃음을 주는 씨앗이 된 것 같아 뿌듯하고 감사했다.

오랜 기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어느 순간 봉사가 나의 만족을 위한 일처럼 느껴지면서 망설여지기도 했다. 그런데 김철수 아저씨의 웃음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모두를 즐겁고 따뜻하게 만드는 활동을 더는 망설일 것 없이 자주 나설 생각이다.

굿바이 콩글리시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할 때 흔히 하는 어색한 표현이 있다. 많은 분들이 “수술 잘 되길 빌어요”를 “I pray your surgery goes well”로 직역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색하다. “Good luck with your surgery” 또는 “I hope your surgery goes well”이 자연스럽다.

수술 잘 되길 빌어요

☹️ I pray your surgery goes well.

😊 Good luck with your surgery.

Let's Talk

- A I'm nervous about my surgery tomorrow.
내일 수술이 걱정돼요.
- B I know how you feel. But don't worry, everything will be okay.
그 기분 알아요. 하지만 걱정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Good luck with your surgery tomorrow.
내일 수술 잘 받으세요.

수술 후 환자에게 격려의 말로 ‘수술 잘 됐어요’라고 할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 ‘잘 됐어요’라는 표현은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니 ‘수술이 잘 끝났다’라는 의미를 살리려면 “The surgery went well”로 말하는 게 좋다.

수술 잘 됐어요

☹️ The surgery was good.

😊 The surgery went well.

Let's Talk

- A How did the surgery go?
수술 잘 됐어요?
- B Yes, it went well.
네, 잘 됐어요.



●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수술간호팀 김가연 주임

‘문화·생활정보 - 올 가을, 좋은 책 함께 읽어요’ 코너를 잘 읽었습니다. 읽어본 책들은 반갑고 아직 읽지 않은 책들은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책 마다의 짧은 설명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아산복살롱’ 독서모임도 좋네요!

외과간호2팀 한은총 사원

94병동에서 진행한 칭찬릴레이 활동은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병동에서는 ‘다이어리 릴레이’ 활동을 진행했어요. 하나의 다이어리를 여러 직원들이 돌아가며 작성하며 소통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뜻깊었던 간호 사례부터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까지, 평소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다이어리에 공유하며 부서원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암병간호2팀 김수연 차장

‘이야기가 있는 산책 - 고양이, 그 독립적 동반자를 위하여’ 글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집에서 고양이와 함께 살다 보니 고양이가 주제인 글을 만나면 더 주의 깊게 읽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과 함께 고양이를 살펴보니 ‘아 그렇구나~’라고 나도 모르게 외치게 되네요.^^ 재미있고 유익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병원간호팀 정은선 대리

소화기내과 임영석 교수님의 B형간염 치료 기준에 대한 연구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간수치가 크게 상승했거나 간경화로 진행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효과적인 간염 예방을 위한 치료 기준 재정립으로 국민건강 수준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술간호팀 김지향 주임

크론병 합병증을 줄이는 새로운 수술법인 델타형 스테이플링 문합술(DSA)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술법을 병원보 뉴스 기사로 접하게 되니 반갑네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 한 번 더 공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NS 돌보기

[암행의사] 남성암 예측 1위, 전립선암



출연: 비뇨의학과 서준교 조교수

전립선암은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아 2024년 국립암센터 예측 통계에서 남성 암 1위에 올라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암 검진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암에 비해

인식률이 낮고 조기 발견이 어려운데요. 인생 중후반에 들 어선 남성들이 알아야 할 전립선암의 증상과 조기 진단법, 로봇 수술 등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백세수업] 하체근력 운동



출연: 건진운영팀 송성일 유닛 매니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특히 하체 근력은 일상의 활동은 물론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 큰 부상을 예방해 줍니다. 종아리 근육 강화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뒤꿈치 들기 운동, 의자를 활용한 스쿼트 등 다양한 운동법을 건진운영팀 송성일 유닛 매니저에게 배워 봅니다.